

게시판

자비복지터는 건립 모금운동 사회복 지법인 승가원(이 사장 중범)은 자비 복지터에 건립을 위한 저금통(사진)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저금통에 정성을 모아 승가원 측에 다시 전달 하면 된다. (02)928-0750

서울숲 개장 6월 18일 개장한 독점 '서울숲'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평일에는 건강걷기 프로그램과 숲속 음악회가, 24일 금요일부터는 자연윌픽, 페이스페인팅, 열기구 체험 등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parkseoul.go.kr/seoulforest)와 서울숲 관리사무소(02-460-2906)에 문의.

어르신 일자리 제공 추진사업노인복지회관(관장 김장근)은 춘천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자리는 동화구연·술상태해설·매장 판매·상품홍보 등의 분야로 나눠 각자의 개성에 맞게 교육한 후 배정된다. 6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033)255-8866

이미용 자원봉사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은 이미용자격증을 갖춘 이들의 자원봉사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02)929-7950

APEC 성공 기념음악회 부산 해운정사(주지 원혜)는 6월 25일 해운정사에서 '부산 APEC 성공개회 기념 해운정악회'를 개최한다. (051)866-7772-3

광진노인복지관 어르신 교육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7월 6일부터 사군자, 단전호수, 건강댄스, 합창, 종이접기 등의 2학기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어르신들을 모집한다. (02)466-6248

20면 상식 퍼즐 정답

삼	소	회	자		
십		심	산	유	곡
이			삼		사
상	소				포
		경	무	대	계
태		진		찰	백
몽	타	주		나	침
					반

"시간 있을 때 박물관에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사람들에게 세계 유명 박물관 관람은 물론 새롭고 신기한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경기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06 세계박물관문화박람회'가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세계 최초의 '박물관 문화 박람회'를 표방하며 경기도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보다 더 다양할 순 없다



카메룬 '담배피는 여인상'.



목야박물관 '진중도'.



에티오피아 은목걸이.



티베트 인공장식모자.



중미 미술관의 '곤충'.

30여개국 150여 박물관·미술관 한자리에

세계박물관문화박람회 7월 1일부터 고양 국제전시장서

'이보다 더 다양할 수는 없다'. 세계 30여개국 150여 개 박물관 및 미술관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그럴 법도 하다. 민속관 자연사관 과학관 기업관 종교관 어린이관 이색관 미술관 등 8개의 그룹으로 나눠 묶어 놓아 관심사 별로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불자들은 불교 전시관이 밀집된 '종교박물관' 불교관 뿐만 아니라 민속관에서 소개하고 있는 목야박물관, 티벳박물관, 티베트미술관 등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불교박물관들이 어떤 모습인지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

테마별 전시...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

- ◆ **민속관**= 전국 각 지방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국내 민속 박물관'은 기본, 민속 행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됐다. 한 발 뺀어 다 문화권을 이해할 수 있는 '해외 민속 박물관'과 '체험관'도 함께 꾸려진다. 체험을 하다 출출할 때는 '세계 민속음식 페스티벌'에서 이국적 분위기를 즐기며 각국의 전통음식을 시식할 수 있다.
- ◆ **자연사관**= 자연과 인류의 시작을 의미하는 박물관 행사장의 입구 '우주와 지구 탄생관'부터 시작해 삼엽충의 '고생대', 공룡의 시대 '중생대'의 화석과 자료를 열람하면서 인류가 출현한 '신생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역사여행 후에는 세계 '자연사 박물관'의 자료, '암석관'과 '보석관'의 화려한 자태에 눈길을 끌었다. '정글 대탐험'이라는 특별 전시로 1,000여 점의 희귀 동식물을 선보이는 '생물관'도 관심 대상이다.
- ◆ **이색관**= 27년간 거북선을 연구한 김영성 씨가 재현한 거북선 모형을 볼 수 있는 '거북선과 전통 전투함', 아프리카의 장신구를 감상할 수 있는 '세계장신구박물관', 영월 폐교를 이용해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꾸민 '영월책박물관', 창조적 종이접기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종이미술박물관', 철도의 역사를 느끼는 '철도박물관'과 전통주제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한국 대나무박물관' 등이 운영된다.
- ◆ **종교관**= 불교역사와 문화재들을 직접 볼 수 있는 '불교박물관'과 프랑스 '클뤼니 박물관'의 유물, '성서박물관'과 '십자가 박물관' 등의 종교 유물을 테마로 한 박물관은 물론 원시종교부터 세계 4대종교까지 인간문화로서의 종교를 생각해보는 '종교역사관'까지 종교에 관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전시관이다.
- ◆ **미술관**= '국내 유명 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을

서야 한다. 미술관에서는 세계 유명 미술관의 진품과 한국 근대 화가들의 걸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사 중 펼쳐지는 박수근·김환기 특별전에서는 평소 접할 수 없었던 화가들의 유품과 영상자료가 공개돼 화제를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동서양 성(性)박물관, 장신구 박물관 등 특이한 박물관이 즐비한 이번 행사를 즐기다보면 박물관은 따분한 곳이라는 편견, 어느새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www.wmce.or.kr, (031)714-8888

김강진 기자 kangjin@buddhapia.com



지구촌 민속박물관에 출품된 17세기 가나의 '달'.

시작으로 박수근 김환기 이종섭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작가들 기획전',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지역 전시관들의 힘을 보여줄 '시각의 전환:중심의 힘' 등이 이어진다. 이 밖에도 '한·중 도예전', 5원소를 통해 지구를 사랑하자는 '물+불+공기+흙+인간' 전, 로망 등의 진품 조각 34점을 볼 수 있는 '루브르 박물관의 아틀리에 조각전'과 피카소 예술의 본질을 보여줄 '피카소 판화전'도 함께 펼쳐진다.

◆ **과학관**=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과 SF 영화를 좋아하는 성인들이 좋아할 만한 전시관. 무중력 체험을 할 수 있는 '우주과학관',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을 전시하는 '과학발전사관', 일상생활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고 직접 실험하는 '과학체험관', 치의학 기술의 발전사를 볼 수 있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 치의학박물관' 등이 기다린다.

◆ **기업관**= 기업 또는 단체가 후원, 운영하는 박물관 및 소장품을 소개하는 '기업박물관', 첨단과학이 선도하는 가정적인 미래생활을 체험하는 '미래체험전시관'이 눈에 띈다. 또 '미래랜드·환경산업관'에서는 첨단 산업분야의 기업, 미래 실용화 가능 제품과 친환경기업 제품을 함께 소개한다. '지자체관'은 각 지자체의 유적, 관광지, 특산물, 문화·관광에 관련된 시장 등을 제시한다.

◆ **어린이관**= 세계 어린이 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하는 다채로운 워크숍과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웅진초등교육박물관', 국내 회귀문화 원화와 만화의 역사 문화 원형을 복원한 '청강만화역사박물관', 만화의 문화예술적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만화박물관' 등이 진행돼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전시관으로 기대되고 있다.



티베트 해골 외피 불문바가지.

이와이 슈운지의 색다른 SF 블록버스터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 감독: 이와이 슈운지 출연: 이토 아유미, 미카미 히로시 상영시간: 147분 등급: 18세 이상

코미디, SF, 액션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마침내 영화 결말에서 멜로로 거대하게 흐르는 놀라운, 이렇듯 강렬한 영상과위를 지닌 영화가 바로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다. 이 영화는 단순히 헐리우드식 SF가 추구하는 화려한 비주얼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시나리오 집필과 각색에 4년이 걸렸고 영어와 중국어, 일어를 넘나드는 국제적인(?) 대본 윤색에는 20명의 동시통역사가 투입된 그야말로 메이스트 인 제팬식 블록버스터다.

2030년 가상의 시대. 일본은 세계 최강국이다. 일본의 엔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화폐이고 각국에서 모여든 불법 이주민들로 가득 채워진 도쿄의 변두리는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사람들은 그 이주민들을 '엔타운'이라 부르고 이주민들은 일본을 '엔타운'이라 부른다. '엔타운'에 사는 가난한 여인 '그리코', 그리고 그녀를 오빠처럼 돌봐

주는 '페이 훙'과 '람'. 꿈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도 한없이 밝고 뜨겁기만 한 네 젊은이들에게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들을 또 다른 시련으로 인도하는데...

이 영화는 1900년대 중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무작정 화와와 LA로 떠났던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과 너무나 닮은꼴이다. 많은 문화차이, 약소국가의 국민이라는 설움을 견디며 그러나 마음속 시들지 않는 희망을 품고 살았던 해외동포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봄직한 영화가 아닐까 싶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앨범

대중가요에 불심을 싣고

운봉 스님, 속세의 삶 거침없이 노래

경북 포항시 연화산 대성사 주지 운봉 스님이 대중가요 음반 '빈잔'을 발표했다. 스님은 이번 앨범에서 속세의 삶을 거침없이 노래한다. 타이틀곡 '빈잔'에는 '내 아내 내 자식 위해 이리저리 뛰고 또 뛰면서 오늘도 한잔 술에 달래 본다'는 가사가 트로트 가락에 실려 흘러나온다. 그러나 결코 속되지 않다. 중생의 삶 가까이에 서서 들고 느끼는 노래를 담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쉽고 호소력 있는 대중가요 리듬에 탄력과 성념을 버리고 사랑과 인정을 취하는 내용의 가사를 싣었다"고 말했다. (054)247-7563



동·서양 소리의 어울림

유경화 신중 국악기 첼현금 연주

거문고나 가야금, 혹은 서양의 기타가 한데 어우러진 듯한 묘한 음향을 가졌다. 8개의 쇠줄을 솔대로 핑기거나 뜯어서 연주하는 이 악기는 '첼현금(鐵絃琴)'. 1940년대에 고안됐다. 소리소문없이 잊혀져 간 신중 국악기다. 첼현금의 매력적인 음색을 담은 첫 음반이 발매됐다. 첼현금이 생명 불어넣은 사람은 거문고를 전공한 유경화씨. 그는 "감이 수통(感而遂通)의 변화를 만드는 연주자"라는 평가를 듣는 국악계의 젊은 인재다. 감이수통이란 '느껴서 드디어 통하게 된다'는 뜻. 앨범은 불교적인 주제가 돋보인다. 산사에서 수행하는 바구니 스님의 삶을 형상화한 '망각이 새'가 대표적이다. 깨달음을 위한 치열한 수행의 여정이 계면조 '라' 음계와 메나리조 '미' 음계 음색에 그대로 살아났다. 불교음악 선율을 담은 '영산회상'과 무속의 세계를 형상화한 '화두'도 눈길을 끈다.



국립광주박물관 무료 영화 상영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추모·감사·화합'을 주제로 '좋은 영화감상회'를 개최한다. 국립광주박물관 야외주차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영화감상회에는 '태극기 휘날리며'(25일) '트로이'(26일) '인생은 아름다워'(27일) 등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가 상영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25일에는 '공보리락 먹기' 체험 이벤트도 마련된다. (062)570-7002



방송 프로그램

<p>BBS 5 5월 20일</p> <p>20일 06:00 불교간좌 21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22일 11:05 아름다운 초대 23일 07:05 아침저널 24일 09:05 행복한 미소 25일 14:05 전시장의 낭만라디오 26일 10:00 라디오 범회</p>	<p>Bn 5월 20일</p> <p>20일 08:00 명상음악산책 21일 15:10 명상음악 22일 14:25 불교TV 매디컬 23일 15:10 휴먼다큐 24일 16:40 향토음식기행 25일 16:20 부처님경전이야기 26일 15:20 산중대담</p>
---	---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6월 24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6월 23일 아침 8:35-09:20) 동양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음이은 석재 다보탑

경주 불국사에서 그 아름다운 명성을 널리 떨치고 있는 다보탑을 소장형 작은 사이즈로 제작한 상품이 나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음이은 석재 다보탑'은 실제 석가탑의 1/45 크기로 다보탑의 섬세한 예술미를 잘 살려내 소장가치를 높인 고급 제품이다. 자연 대리석에서 방출되는 음이온이 몸에 이로운 기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은은한 야광효과까지 발산해 실내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오통나무 고급박스에 포장, 선물용으로 손색없다. 가격 39만 8000원.

